목포 올해 '유케한' 봄 축제 기대 만발

〈유달산+케이블카〉

유달산 꽃축제 2년만에 부활…예산 늘리고 3주동안 개최
4월 맛의 도시 선포·해상케이블카 개통 등 시너지 극대화

목포를 대표하는 관광지 유달산. 해마다 봄이면 이 곳에 벚꽃과 개나리가 만개해 시민들과 상춘객들로부터 사랑을 받아 온 '유달산 꽃 축제'가 끊긴지 2년 만에 화려하게 부활한다.

11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의 대표적인 봄 축제 중 하나인 유달산 꽃 축제는 수년 동안 개화시기를 맞추지 못해 열지 못하다가 지난 2017년부터 같은 4월에 열리는 '이순신 수군문화제'에 흡수·통합되는 수난을 겪었다.

하지만 민선 7기 들어서면서 이순신 관련 축제가 타 지역에도 많아 차별화가 어렵고 유달산 꽃 축제를 되살려야 한다는 여론이 지역 내에서 줄기차게 제기돼 왔다.

이에 목포시는 지난해 12월 시민·관광객·축제 추진위원 등을 대상으로 10일 동안 '목포 이미지에 부합하고 목포 대표축제로 어떤 것이 좋은가'에 대한 축제 선호도(1732명 참여)를 조사한 결과, 81.18%가 꽃피는 유달산 축제를 꼽았고 이순신 수군문화제는 18.13%에 그쳤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올해부터 유달산 꽃 축제를 부활키로 하고 이달 초 '2019 유달산 봄 축제' 기본 계획을 내놨다.

특히 올해는 목포시가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여는 원년으로 선포한데다가 4월 12일 서울에서 '맛의 도시 선포'와 4월 19일 '해상케이블카 개통' 등 대형 프로젝트가 잇따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목포시에 따르면 유달산 꽃 축제는 기존 봄 축제 기간(2~3일)에서 봄맞이 주간(3주간)으로 늘려 기상변화에 따른 예산 낭비 위험을 사전 예방하고 명칭도 꽃 축제가 아닌 봄 축제로 바뀐다.

올 축제의 컨셉은 '유케(유달산+케이블카 이니셜)한' 봄 축제다.

축제는 1주차 4월 6~7일, 2주차 13~14일, 3주차 20일 등 총 3회에 걸쳐 5일간 개최된다. 관련 예산도 예년에 비해 대폭 늘어 1억9000만원이 책정됐다.

유달산 봄맞이 주간으로 축제를 개최하되 유달산 봄꽃에 국한하지 않고 주별로 차별화된 테마를 선보인다는 게 목포시 관광과의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4월 1주차에는 노적봉을 중심으로 4·8 만세운동 재현, 플래시몹, '유케한' 시민 노래자랑, 유달산 둘레길 트레킹 및 근대역사거리 탐방·투어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이벤트가 펼쳐진다.

또 2주차에는 유달산 일주도로를 중심으로 버스킹 공연이 진행되고 3주차에는 케이블카 개통식과 함께 다양한 축하 행사가 곁들여진다.

목포시 관광과 관계자는 "현재 계획대로라면 4월 6일 유달산 봄 축제를 시작으로 12일 서울에서 맛의 도시 목포 선언하고 19일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 개통 등 4월 한 달 동안 축제 분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여는 이 같은 굵직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 유달산 봄 축제가 사라진 지 2년 만에 화려하게 부활한다. 특히 올해는 해상케이블카 개통과 맛의 도시 선포와 맞물려 기간과 예산도 대폭 늘어나는 등 차별화된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유달산 조각공원 재정비 관광자원 활용해야

경관 탁월하고 볼거리도 쏠쏠
봄축제 등 연계 관광코스 개발

오는 4월 '유달산 봄 축제'와 '해상케이블카 개통'과 맞물려 유달산에 조성된 각종 시설을 재정비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높이 228m의 유달산은 백두대간과 호남정맥으로 이어지는 영산기맥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으로 수많은 문화재가 산재돼 있고 지난 1966년 공원으로 지정됐다.

특히 이 곳에는 '국내 최초 야외 조각공원'이라는 타이틀을 지닌 조각공원이 조성돼 있다.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1982년 3만9700㎡ 규모로 조성된 조각공원에는 1994년까지 100점의 조각품이 임대 전시돼 오다가 지난 2007년부터 14억1500만원의 예산을 세워 재전시 7점과 신규 31점 등 총 38점을 구매, 2008년 8월 유달산 조각공원 재개원식을 가졌다.

이후 2009년 국제 조각 작품 심포지엄을 개최해 영국, 네덜란드, 포르투갈 작가 작품 3점을 설치하고 2010년에 이탈리아, 프랑스 작가 작품 2점이 더해져 현재 외국 작가 7명을 포함한 총 46명의 작가 작품이 전시돼 있다.

여기에 조각공원이 조성될 때 심은 각종 수목들의 수령이 38년이 경과되면서 조경수로써 가치가 뛰어난데다가 시내 경관은 물론 삼학도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경관도 탁월해 관광 코스로 손색이 없다.

하지만 목포시민들의 무관심과 함께 목포시의 홍보 사각지대에 놓여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무료로 전환되면서 방문객 집계도 안 돼 연간 몇 명이 다녀갔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조각공원 인근에는 희귀·멸종 우려 자생식물 보급을 위해 지난 2000년에 세워진 '특정 자생식물원'도 가치 있는 볼거리지만 외면받고 있다. 5140㎡ 규모의 자생식물원은 야생화 천국으로 야생화 268종과 수목 79종이 전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특정 자생식물원이라는 명칭부터가 외지인이나 관광객들에게 생소하고 어려워 '남도 야생화 정원'이나 '향기나는 야생화 언덕' 등과 같이 기억하기 쉽고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명칭으로 바꿔야 한다는 견해도 많다.

이에 대해 목포 예총 등 지역 예술계에서는 "해상케이블카 개통을 앞두고 새로운 관광시설을 확충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어 기존 유달산이 지니고 있는 보석을 살리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면서 기존 시설부터 제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귀선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장도 "오는 4월 기존과 달리 유달산 봄 축제를 3주간에 나누어 개최하는 만큼 축제 무대를 특정 지역으로 국한하지 말고 유달산 조각공원 내에 조성된 야외무대를 활용해 이곳에서 버스킹 공연을 펼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히 조각공원뿐만 아니라 특정자생 식물원, 난 전시관 등 기 조성돼 있는 유달산 내 전시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맞아 새로운 관광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유달산에 조성된 각종 시설을 재정비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최초 야외 조각공원인 유달산 조각공원 전경.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시 관광객 1000만 시대·전국체전 성공 개최 위해

"수시인사 활성화로 행정 효율성 높여야"

목포시가 올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맞아 추진 중인 대형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시인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목포시는 지난 1월 초 민선7기 조직개편과 정기 인사에 따른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일부 미흡한 부분이 드러나면서 하반기 정기인사 때까지 미루기보다는 수시인사를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우선 전국체전을 대비한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2022년 전국체전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목포 종합경기장 건립, 유달경기장 매각, 체전 종목별 경기장 개보수, 목포국제축구센터 기능보강 등 대형 사업들을 추진해야 한다.

목포 종합경기장 건립은 사업 특성상 제안서 평가-업체선정-실시설계-토지보상 등 거쳐야할 절차가 많고 토목공사와 건축 공사 기간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공기가 빠듯한 실정이다.

여기에 종합경기장 건립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유달경기장을 신속하게 매각해야 하고 종목별 8개 경기장의 개보수 사업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 업무를 추진하는 교육체육과에 시설직렬(토목직)이 부족해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체전 TF팀을 구성하거나 대형 사업을 추진해본 경험이 있는 토목직 직원(7급 이상)을 수시인사를 통해 하루빨리 충원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현재 교육체육과 정원이 19명이지만 현원은 17명으로 2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목포시는 오는 4월 맛의 도시 선포와 해상케이블카 개통 등 관광객 1000만 명 유치의 호기를 맞아 대대적인 '목포사랑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다수 시민들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시 불친절·바가지요금으로 관광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었던 전철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목포시가 좀 더 강력한 단속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목포를 찾은 외지 관광객들이 관광지에서 일어난 민원을 관광과에 신고하지만 단속업무는 보건소 위생과 소관이어서 민원이 즉시 처리되지 못해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단속 권한이 있는 보건위생과 직원을 관광과에 파견해 기동단속을 통해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행정의 신뢰도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훈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내 관광지로 유명한 타 지자체에서도 합동근무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와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면서 "목포시도 이를 적극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김종식 시장 소통행정 본격 나선다

내일부터 시민과의 대화

민선 7기 목포시의 시정보고와 시민과의 대화가 시작된다.

목포시는 1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하루 2개 동씩 12일에 걸쳐 23개 동을 순회하며 소통행정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여는 원년으로 4월 12일 서울서 '맛의 도시 선포식'을 시작으로 같은 달 19일 '해상케이블카 개통', 8월 8일 삼학도에서 섬의날 '목포 선언' 등 대형 프로젝트들을 앞두고 열리는 시민과의 대화여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종식〈사진〉 목포시장은 이번 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목포시가 제2의 도약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전남 제5의 도시로 추락하느냐'가 올 한해 시민들의 역량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 시민의식 개혁운동으로 확산시켜가고 있는 '친절, 질서, 청결, 나눔의 목포사랑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지역 내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손혜원 논란과 서산·온금 지구 등과 관련해 유달동(25일)과 만호동(27일)에서 열릴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김 시장의 견해와 함께 목포시의 사업추진 방향이 어떤 식으로든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목포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이번 대화는 시정운영 방향을 시민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인원을 크게 줄였다"면서 "민생과 관련된 시급한 민원사항과 예산이 확보된 사업은 상반기 내 즉시 처리하고 예산 미확보 사업은 추경에 반영해 올해 안으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362-3336 돌고개지점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